

공존과 화해: 18세기 독자 의식 소설

- 기독교적인 감성과 찰나주의 -

황 인 경

0. 들어가는 말

“18세기에는 *Treatise of Human Nature*¹⁾에서 공감의 원리를 거론한다. 공감의 원리는 자신을 잊고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즐거움이나 불안을 자기 일처럼 다른 사람과의 공통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다.” (최주리, P.127) 이와 같은 맥락에서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서 비롯된 은 박애주의적 기독교의 메시지²⁾를 18세기에 유행하기 시작한 스텐(Laurence Stern)은 인간의 감수성 찬양 또는 감상주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에게 인간의 천성(감수성을 포함)은 본래 선한 것이며 감수성은 타인과의 교감을 가능케 하여 인간과 인간을 엮어주는 매개체의 구실을 한다고 한다. 도덕성은 머리가 아닌 감정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자발적인 동정(spontaneous sympathy)”³⁾이 지식과 경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순간순간의 생활을 소중히 여기면서 느끼는 감정이고 그 감정은 절제 없이 순간적으로 슬픔이 복받쳐 올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순간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무한한 기쁜 감정이 될 수 있다고

1) 본 논고 p.10 참조

2) 필딩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자연 신에 대한 궁극적인 믿음을 수반하는 신의 섭리라는 주제로 그의 작품에서 표현된다. 필딩의 신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아담즈 목사를 통해서 독자와 다른 작중 인물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김일영, p.20)

3) . . . 스텐은 가톨릭과 가톨릭의 종교 재판을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독단의 상징으로 묘사해 스텐의 반가톨릭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 짐작케 한다. 가톨릭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스텐 문학의 또 다른 측면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감상주의(sentimentalism)와 감상주의 문학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7세기 케임브리지 플라톤 학파(Cambridge Platonists)는 홉스(Hobbes)의 성악설에 반기를 들고 인간의 선과 완전성에 믿음을 표명하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을 지향하고 악을 피하려는 도덕성을 지녔다고 주장한다. 이사상은 18세기 영국의 사상가들에 계승되어 이에 영향을 받은 샤프츠베리 (TheThird Earl of Shaftesbury)는 인간의 도덕성과 감수성을 옹호하였으며, 허치슨(Hutcheson)은 자비를 인간의 최대 덕목이라고 칭송하였다. 흄(David Hume)은 더 나아가 도덕성은 머리가 아니라 감정에 그 뿌리를 두었다고 말함으로써 도덕성과 감수성을 접목 시킨다. 이 일군의 사상가들은 도덕성과 “자발적인 동정(spontaneous sympathy)이 인간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말함으로써 『도덕감 이론』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1759)을 쓴 애덤 스미스(Adam Smith)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 중산층들은 자신들이 부도덕한 귀족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 시키기 위해서 경건함과 도덕성을 더욱 강조하여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소위 “감수성의 시대 라 Age of Sensibility 또는 Age of Sentimentalism”라고 불릴 정도로 감상주의의 세력이 더욱 확장 된다. (김일영, pp., 16-27)

한다. 심장을 뛰게 하는 순간순간이 소중한 것이며, 이러한 심장을 뛰게 하는 신경계는 결코 인간을 교화 시켜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정서가 넘쳐서 사회적 연대와의 연민, 동정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순간순간의 감정은 인간 본연의 모습의 감정을 원초적으로 끌어 올리려는 작가의 실험주의적인 시도이기도 하다. 또한 도덕성은 기계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자발적인 감정이 넘쳐 흘러 나오는 것은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가들은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지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19세기 낭만주의 영시 작가들에게도 영감을 주어 시인이 아닌 산문작가들이 이러한 시적 영감에 불려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에도 선구자적인 공헌을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한 감정에서 이러한 감수성의 찬양은 그만큼 독자의 의식 속에서 자리매김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I. 본 론

이러한 자발적인 감정의 주체는 인간 사회의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사회에서 우러러보는 영웅적인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예를 들면, *Tristram Shandy*에서 나오는 주인공인 Shandy란 단어가 요크셔 사투리로 볼 때 "정신 나간 a little crack-brained"이란 뜻도 있지만, 아더 왕의 전설에 나오는 렌슬릿과 같은 훌륭한 기사 이름이 트리스트램(Tristram)이라는 것으로 바라볼 때, sensible (아더 왕의 기사중의 한 사람/그리스의 세배나 큰 거대한)과 sentimental(별 볼일 없음)이 양가적인 속성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다. 소위 주류층(main stream)이라는 존재가 가장 이상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기득권이라든가 귀족 계층이나 지식인들의 엘리트 층도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을 그리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과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주인공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세상은 경험과 과학의 검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 .I tremble to think what a foundation had been laid for a thousand weakness both of body and mind, which no skill of the physician or the philosopher could ever afterwards have set thoroughly to rights. (Vol.I. 제

2장 끝부분,p. 41)

결과적으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결합의 기초가 다져지고, 이후로는 어떤 의사나 철학자(경험주의 철학자)의 능력으로도 온전하게 되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 온 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중요성 즉, 양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양심은 법은 아니지만, 도덕과 덕을 갖춘 교양인으로서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 것이지 인간이 법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켜야 될 법이 오히려 인간에게 상처가 주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지난 이성적인 종교 교리와 정치적인 법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을 가르킴)

*Tristram Shandy*에 나오는 요릭은 『햄릿』에 나오는 광대의 이름을 딴 화자 요릭(yorick)은 heart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는 더욱이 무분별하여 다수의 적이 많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된다. 분별력(sensible)없이 감정에만 치우쳐(sentimental) 사람이라 거침없이 솔직하고 눈치없이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았지만 순수하는 자로 불쌍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또 그들과 슬픔과 공감하기도 한다.

His character was, - he loved a jest in his heart - and as he saw himself in the true point of ridicule, . . (p.61)

즉 공민적 미덕과 교양의 부족으로 사회화의 일원에 동참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로렌스 스텐(Laurence Stern)의 작품의 요릭에서 보듯이 sensibility는 스텐 이후 1760년대를 거쳐 70년대에 이르면서 감성주의는 덕성이나 천성적으로 착한 마음 보다는 극도로 섬세해진 감성보다 노골적인 표현등에 치우치는 경향을 띠었다. 그러한 노골적인 작품이 『풍류기행』 (*A Sentimental Journey*)는 순수한 기행문이 아니라 그래서 지리나 풍습에 관한 언급은 없고 길 가는 미녀를 보고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길가에 버려진 죽은 나귀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등, 작자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그래서 제목을 번역할 때 여정에서 헤아릴 ‘정(程)’이 아니라 감정의 ‘정(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Henry Mackenzie의 『감성의 남자』 (*The Man of Feeling*)에서 작품의 주인공인 Harley는 재산문제 때문에 런던으로 향하는데, 그는 런던에서 사기만

당하고 아무런 일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는 그 곳에서 가련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면서 감성적 경험을 한다. 에드워즈의 불행한 애기와 그의 아들에 대한 죽음 등 많은 슬픈 에피소드를 겪고 집으로 돌아온 Harley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숨이 끊어진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가련한 처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동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데 이것은 독자들⁴⁾에게 연민을 유발시켜 감정을 넘쳐 흘리는 동정심을 불러 일으킨다는데서 감성의 넘쳐흐름이라고 부를 수 있다.

I felt my heart swell at her words; I would have been angry if I could, but I was in that stupid state which is not easily awakened to anger: when I would have chid her reproof stuck in my throat; I could only weep! (p. 43)

그러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면 자기가 가던 길도 가까워지게 느껴지는 법이다. 사람이 기쁘면, 자기 주변이나 사물도 즐겁게 보인다는 것이다.

The road was shortened by the dreams of happiness I enjoyed, and it began to be dark as I reached the house; (p.47)

고아들을 보면서 나의 my children, . . . these little ones"- his tears choked his utterance... (p.67). 독자들은 어떠한 정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연극에서 무대의 배우를 보면서 슬픈 절정의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말이다.

There was something very emphatical in the action, for it was followed by a burst of laughter round the table. "Gentleman, " said Harly, "you are disposed to be merry; it may be as you imagine, for I confess myself ignorant of the town. . . (p.35)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도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선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독자는 이성을 상상을 해야만 한다. 갑작스런 웃음 역시 예견된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기쁨 감정이라 시간정렬이나 배치가 어렵다.

4) 고전영문학의 흐름. p. 214.

그러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넘치면 자기가 가던 길도 가까워지게 느껴지는 법이다. 사람이 기쁘면, 자기 주변이나 사물도 즐겁게 보인다는 것이다.

The road was shortened by the dreams of happiness I enjoyed, and it began to be dark as I reached the house; (p.47)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나약한 주인공들의 모습 속에서 거친 세상을 사는데 무척 힘이 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감성주의 소설이 지나치게 퇴폐적이라든가 혹은 지나치게 반이성적이라고 해서 유해성의 논란도 그치지를 았았다고 한다. 감성소설은 독자를 무책임하고 비이성적이고 비절제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분별력 있는 독자를 바라보는 작가에게 있어서는 감정은 심장 부근에 있는 신경줄의 떨림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때그때 심장 떨림을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감정은 순간순간 떠올르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 . . but a momentous re-pique decided it in favour of his adversary, who seemed to enjoy his victory mingled with regret.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 소설은 fragmentary episode of the life of Harley처럼 전개된 듯하게 보인다. 물론 처음 manuscript(원고)의 앞의 10장 전부가 유실되었기는 하지만 말이다. 조각조각 그 순간의 감정이 떠올라서 글을 써 내려간듯한 인상은 이와 같은 감정의 순간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듯하다. 생각없이 나온 순간의 감정이 천박한 sentimental로 전락되기 쉽지만, 항상 이성으로 깨워있는 감정이라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민적 교양(civic refinement)라는 것과는 반해서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갑자기 경험하는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 혹은 통찰을 갖게되는 순간들(moment)를 소중히 다룬다.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의 연상작용에 의해서 사물을 본다. 그 길은 내가 꿈꿔왔던 행복의 꿈을 꾸면서 걸으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짧게 느껴지는 법이다. 행복만가지고도 현대 기술로 잘 닦여진 그 길이라 할지라도 행복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딱딱하고 멀고 긴 길이라는 것일 뿐이다. 똑같은 길이지만, 길과 거리는 언제든지 정확하게 놓여 있다. 이성으로 생각할 때 몇 리나 되고 몇 에이커가 되야 하지만, 감성 소설에서는 걸리는 시간의 동사'take'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18세기 초에 유행하던 소설 작품의 제목이 생애라는 말 뒤에 모험이나 여행,

불행 등의 말로 이어지는 것과는 달리 의견, 혹은 견해라는 뜻의 'Opinion'라는 말로 이어지면서 『트리스트램의 생애와 의견』(*The Life and Opinions of Tristram Shandy*)이라는 이색적인 제목을 가지면서 주인공의 생각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주인공의 탄생이 아닌 잉태의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각의 연상작용이론을 적용시킨 서술 순서는 소설은 어디까지 허구 이지 결코 삶의 한 토막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스티븐 소설안에서는 시간은 시계의 시간과 다르다. 서술기법이 모더니스트들이 즐겨 사용하던 의식의 흐름의 수법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는 의사소통에도 지장을 겪고 언어 보다는 그들이 순간순간 찰나에 하는 행동이나 행위에 따른 서술이 중요할 뿐이다. 순간순간 감정이 그 때 그 때 달라서 요력과 같이 일관성이 없는 성격이 나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At other times, and in other moods, when his spirits were above the temptation of false wit, - he would say, he found himself going off fast in a consumption; and with great gravity, would pretend, he could not bear the sight of a fat without a dejection of heart. (p.61)

로렌스의 작품에는 'the time when ~'이란 말과 진행형의 문장이나 구문이 자주 등장한다. 문학에서 'epiphany'라는 것이 "an experience of sudden and striking realization" 이라고 할 때 이성이나 과학적 검증에 의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순간의 경험을 통해서도 감정이 분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간순간 떠오르는 감정은 인간들을 계몽하거나 과학이나 검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차거운 이성과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파사로운 사랑(heart)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18세기 중반에는 감상적인 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honour, politeness 세련된 시민의식의 성장이 전통적인 지주계층과 재력 있는 신흥 계층 모두가 이 단어를 즐겼다고 한다. 이러한 단어들을 엮어내는 감정을 표현하는 작품들은 독자를 의식하기 위해서 자아낸 단어들이라는 것이다. 즉 모든 사람들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이고 분별력있는 단어의 선택의 신중함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언어 만을 가지고 표현해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독자 문자 그대로 해독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웠을 것이고, 그러한 상상력으로 교감을 이루어 내는 어려움도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보편적인 잠재성⁵⁾의 인정어린 감정을 독자에게서 끌어 내리기 위해서는 작가는 sympathy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감성의 남자』(*The Man of Feeling*)는 그 당시에 많은 열광을 받으면서 “이 작품을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문희경, p.214). 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가 교감하면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소용돌이 속에서의 화해를 이뤄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위선된 교양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미덕은 결코 자발적인 감정이나 자발적인 동정심을 유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감정은 절대로 기계적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으로 엮어졌다고 판단한 작가들이 18세기 초에 나온 문학 작품들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헨리 필딩(Henry Fielding)에서 비롯된 은 박애주의적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The Evening now coming on, *Joseph*, retired to his Chamber, with the good *Adams* accompanied him; and took this Opportunity to expatiate on the great Mercies God had lately shewn him, of which he ought not only to have the deepest inward sense; but likewise to express outward Thankfulness for the, They therefore fell both on their Knees, and spent a considerable time in Prayer and Thanksgiving. (p.121)

그의 작품 속에서 재산이 없는 신사로 등장하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목가적 시대의 이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인 실현과 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heart의 이미지를 구현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그의 작품 『조셉 앤드류스』에 등장하는 아담스 목사(Parson Adams)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안을 주고자 하는 기독교적인 관용을 구현하는 인물이다. 하인인 조셉 앤드류스에게도 헌신적으로 돌보아 준 유일한 사람이다. singular devotion to young Andrews,. . .

His virtue and his other Qualificatios, as they rendered him equal to his

5) 기독교적인 보편성: 18세기에도 종교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종교적인 소용돌이 -비국교도, 국교도, 구교와 신교 - 속에서도 이러한 종교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자애와 박애사상을 결집하고자 하였다.

Office, so they made him an agreeable and valuable Companion, . .

가난한 사람의 자녀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charity school’등을 제공하는 상류층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되었고 상인계층의 너그러운 후원자들이 자신의 미덕을 과시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미덕을 중요시 여기는 18세기에 귀족이 아닌 소시민과 중산층에게도 이와 같은 공민적 미덕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귀족층인 독자를 의식하여서 작가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와같은 등장인물들의 대화 속에서 삽입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러한 미덕은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성이며, 이것은 기독교적인 박애 정신에서 우러나오는 이성보다는 heart에서 기인된다는 것이다. 귀족의 위선적인 도덕성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고자 한 18세기 당시의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I. 나오는 말

18세기는 귀족과 신흥중산층계급과 중소상인층의 등장으로 근대를 알리는 시기 였다. 대립보다는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성의 시대이지만 그 이면에는 동시에 인간의 따사로운 heart가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센스있는/sensible한 사회를 추구하지 않았나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덕감 철학 (moral sense philosophy)이 문학속에 간간히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우선 독자/사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가인 포콕(J.S.A · Pock)이 구분한 공민적 미덕 (Civic Virtue & Civil Refiness)이 ‘heart’와 ‘reason’을 잘 조화로운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공민적 미덕은 공익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귀족계층만이 진정한 미덕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중산층과 귀족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매개체가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dramatic narrator를 등장하거나 혹은 『트리스트램 샌디』에 나오는 Tristram Shandy의 양가적인 속성은 신분상승이 가능했던 18세기를 대변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분상

승의 가능성을 귀족층의 독자에게 설득하려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성주의 소설인 『트리스트램 샌디』의 책 제목에는 모험, 행운과 불행, 여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주인공인 트리스트램의 목적은 독자에게 자신의 모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위의 작품은 anti-novel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그것은 독자에게 자신의 세상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6) 그리고, 『감성의 남자』 *The Man of Feeling*에서 이 작품은 감정은 순간순간 떠올리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가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 but a momentous re-pique decided it in favour of his adversary, who seemed to enjoy his victory mingled with regret.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이 소설은 fragmentary episode of the life of Harley처럼 전개된 듯하게 보인다. 물론 처음 manuscript(원고)의 앞의 10장 전부가 유실되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것은 조각조각 그 순간의 감정의 찰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떠올라서 글을 써 내려간 듯한 인상은 이와 같은 감정의 순간을 더 뒷받침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성적인 자각없이 나온 순간의 순수한 감정이 비이성적이고 비관용적인 ‘sentimental’로 타락되기도 지성과 이성을 겸비하는 이른바 위있는 시민적 교양(civic refinement)라는 것과는 반해서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사물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감지되는 순간의 영원성을 바라보는 비이성적이고 보이지 않는 대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통찰력의 감각은 하나의 찰나의 순간들(moment)를 소중히 다룬다. 순간순간 생각의 연상 작용에 의해서 글을 써 나가면서 이러한 순간의 영원성을 바라보는 감각을 호소하기도 한다. 사물을 본다는 것이다.

『조셉 앤드류스』 *Joseph Andrews*에서 필딩(Fielding)은 자비란 자본이 많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님을 시사해 준 바가 있다. 가장 어렵고 가난한 사람 중에 하나인 아담스(Adams) 목사였던 것이었고 조셉(Joseph)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인 마부의 조수 였다는 사살임을 생각해 볼 때, 귀족층, 중소상인

6) 책의제목에는 모험adventures, 행운과 불행 fortune and misfortune, 여행 expedition 등의 단어가 들어가 있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스티븐은 이를 조롱 하듯이 모험이라는 말 대신 의견 opinio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주인공인 트리스트램의 목적은 독자에게 자신의 모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일영, p. 341)

등의 계급을 초월한 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다. 냉철한 이성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감성(heart)의 풍성한 감정과 감성이 넘쳐 흐를 때 사회가 하나되어 조화를 이루어 공존과 화해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산문 혹은 소설가들이 모여서 그들은 이미 19세기의 낭만주의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바로 뒤에 오는, 워즈워드(Wordsworth)의 『서정 시집 서문』(*Preface to Lyrical Ballad*)에 나오는 '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이 바로 그것이다.

핵심어: 공감의 원리, 자발적인 동정, 에피파니, 『조셉 앤드류스』, 『트리스트램 샌디』, 『감성의 남자』. 감성 시대, 공민적 미덕, 시민적 교양. 기독교적인 박애주의.

Treatise of Human Nature 의 서문 중

데이비드 흄에게 경험주의는 더 이상 관념들의 감각적 기원에 의해 본질적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것은 관계, 경우, 착각[가상]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발전시킨다.

한편으로, 관계는 언제나 관계 자신의 항들에 대해 외재적이고, 그 항들로부터 수립과 실행을 결정하는 연합의 원리에 의존한다(믿음). 다른 한편으로, 이 연합의 원리는 문화의 세계와 법의 세계에서 '경우들'을 지시하는 데 있어 정념에 따라 작용할 뿐이다. 끝으로, 관계의 합법적 규칙은 그것을 동반하거나 배가시키는 허구, 불법적 믿음과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이 모든 영역에서 경험주의는 믿음을 자연화시키는 무신론적 기획 안에서 지식을 실천적 믿음으로 대체했다.

흄을 포함한, 모든 철학적 이론이란 물음의 전개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제기된 물음의 필연적 내포들을 끝까지 전개시키는 작업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사물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물음을 던진다는 것은 사물을 물음에 종속시켜 본질이나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물음을 비판한다는 것은 그 물음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고 올바르게 제기되는지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자격요건심사). 그것은 다시 말해 다른 물음이 던져지면, 사물도 현재의 그것과 달라지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철학에서 물음과 물음에 대한 비판은 동일하다. 그러니 실제로 단 한 종류의 반론만이 유효하다. 어떤 철학자가 제기한 물음이 좋은 물음이 아님을, 우리가 그 물음을 더 잘 제기하거나 다른 물음을 제기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칸트가 흄을 비판하는 방법이 좋은 예이다.(214~216)

이 점에서 흄의 경험주의가 모든 것을 '원자화'했다며 반대를 제기하는 것은 철학적 태도가 아니다. 또한 그것은 심지어 헛다리짚기이다. 흄은 원자론자가 아니라 연합론자이니까. 원자론이 관념의 이론이라면, 연합론은 관계의 이론이다.(213) 칸트적 전통에서 경험주의는 인식이 오로지 경험에서 시작되고, 경험에서 유래하는 내용의 이론이다. 그러나 이는 만족스러운 접근이 아니다.(217) 인식은 경험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천적 활동의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경험이란 일의적이거나 구성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 흄이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험'의 두 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험을 '구별되는 지각의 다발'이라고 정의할 경우, '관계'란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관계는 연합 원리의 결과이다. 즉 경험 속에서 그 경험을 넘어서 수 있는 주체를 구성하는 인간본성의 원리가 자아낸 결과이다. 두 번째, 경험이 과거 대상들의 다양한 연결을 지칭할 경우, 그 경험이 하나의 원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218) 칸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흄은 단지 지각만 얘기하고, 칸트는 인식구조를 얘기한다는 식의 구분이 아니라, 사실 흄도 단순한 의미에서의 경험을 넘어서는 원리

를 인간 안에서 보았다. 흄은 그 유래를 ‘자연’에서 보았다.(218:들뢰즈의 각주에 대한 역주)
요컨대 경험주의에서 인식이란 경험에서 유래하거나 구성되는 것이기보다는 “주어진” 것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주어진 것은 다시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관념의 다발과 경험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이 다발 안에서 경험을 넘어서는 주체와 관념들에 의존하지 않는 관계가 주어진다.(220) 주어진 것은 객관세계에서 오는 관념의 다발이나 경험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다발들을 묶고 정리하는 상상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주체 역시 주어진 것으로, 이런 이원성이 경험주의를 특징짓는다.(220, 역주)

자연과 인간본성, 주어진 것의 기원인 힘과 주어진 것 안에서 주체를 구성하는 원리 사이는 일치로서 연결된다. 즉 관념의 다발-관념들의 연합, 자연의 규칙-표상의 규칙, 자연 안에서 현상의 재생산 규칙-정신 안에서 표상의 재생산 규칙 사이에 일어나는 일치이다. 이 일치는 하나의 사실이며, 합목적성의 문제이다. 칸트는 연합론을 정확히 이 지점에서 이해했고, 비판의 화살 역시 이 부분에 겨냥했다. (221, 인용문 참조) 그래서 재생의 법칙이 이미 어떤 규칙에 종속돼 있음, 현상들의 필연적인 종합적 통일의 선험적 근거가 됨으로써 현상들의 재생까지도 가능케 하는 ‘무엇’이 틀림없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상력의 순수한 초험적 종합을 받아들여야만 한다.”(223)...

References(참고 문헌)

- 김일영,(2010), *Joseph Andrews*,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by Kim Il-Yeong , 서울, 신아사
- _____ (2001), *Tristram Shandy* (I), (II) by Laurence Stern, Annotated with Critical Introduction by Kim Il-Yeong , 서울, 신아사.
- _____ (2005), 『트리스트램 샌디, 영미 소설 해설 총서』, 서울, 신아사,
- 김정숙. (1999), 「“새로운 18세기를 위하여」, 『18세기 영국 소
- 김정숙. (1999), 「“새로운 18세기를 위하여」, 『18세기 영국 소설 강의』
서울, 신아사.
- 문희경.(2000). 「 왕정복고기와 18세기 영문학」, 『고전영문학의 흐름』,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최주리, (1999), 「감상소설 The Sentimental Novel」, 『18세기 영국소설 강의』
서울, 신아사.

Barnard, Robert. 1994. *A Short History of English Literature*, 2nd Edition.
Oxford, Blackwell.

Mackenzie, Henry 1773, *The Man of Feeling* rded ehttp://www.kessinger.net

External links

<http://blog.naver.com/PostPrint.nhn?blogId=gami1023No=141038923>

<http://ko.wikipedia.org>

<http://hankyungseok.com/4089/3d0/trackback>

<http://sparknotes.com>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